일 대학병원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상숙* · 손인순** · 이명해*** · 최경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송경애, 노춘희, 1996).

간호사들은 전문직 영역에서 환자에게 깊은 애정과 존중, 사랑을 갖고 독자적으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과 회복을 돕고, 대상자의 간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산업장·학교에서 건강상담을 통하여 건강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환자치유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 대상자의 옹호자, 조정자,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조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김형자, 김현옥, 2001).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이라고 정의하였다(Kotler and Clarke, 1987). 본래 생리학 용어인 이미지는 근간에 와서 마케팅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고객 내지 소비자가 특정 기업 및 제품에 관하여 품고 있는 좋고 나쁜 느낌을 말하며 느낌은 개인이 환경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과정과 개인이 다양한 감각을 통하여 자극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송인자, 1993). 그러므로 마케팅은 간호사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과 새로운 욕구를 이해하고 개발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새롭게 성취 지향적인 간호사의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써 현 간호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 다른 보건 전문가 그리고 대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직장단위에서 간호사와 함께 상호 작용하는 의사와 병원직원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경험을 통하여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신념, 느낌을 포함한다(송인자, 1993). 이미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어쩌면 허상일 수도 있으나 현실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채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간호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이미지는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만족도를 증진시키며 결과적으로 간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간호 전문적 수준을 향상(김형자, 김현옥, 2001)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향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김복랑외 5인, 1996).

그러나 오랫동안 일반대중 및 동료직원들은 간호사를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불친절하고, 기계적이며, 의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변인물로 인식함으

*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의료원 간호차장
*** 경희의료원 수간호사
**** 경희의료원 간호사

로써 실제 간호사들이 행하고 있는 간호의 전문기능과 사회적 역할이 과소 평가되어 왔다. 실제와 다른 부정적 이미지는 간호사의 자존심에 영향을 주고 간호사의 신념과 가치, 자신감을 손상시키며 간호사의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전문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사와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하는 의사와 직원 그리고 간호대상자인 환자 및 보호자가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영역별 이미지를 확인함으로써 간호 전문직 발전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히고 바람직한 간호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비교한다.
2)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을 확인한다.
3)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 집단의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다.
4)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변화를 확인한다.
5)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정도를 비교한다.

3. 용어의 정의

간호사 이미지 : 일반대중에게 인식되는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총합(Kotler and Clarke, 1987)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김형자, 김현옥(2001)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만든 도구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Ⅱ. 문헌 고찰

1. 간호사 이미지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상(象), 영상(映像), 물리적 유사성, 사진, 가시화된 사람·동물·사물에 대한 표현이나 상징 혹은 하나의 개념으로 개인의 생각속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endez and Louis, 1991).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동의없이는 형성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와 같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면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며 일단 특정조직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구축되면 그것은 그 조직만의 독특한 고유 자산이 되어 다른 경쟁조직이 쉽게 빼앗아 갈 수 없으며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어 강력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이희준, 1990). 이미지란 개인이 어떤 영상에 대해 갖는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Kotler and Clarke, 1987)이며, 어떤 사물의 이름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사람의 머리에 떠오르는 구체적인 모습, 영상, 심상(김미영, 1985)이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개개인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생각할 때 그 특정 대상에 대해 그 개인이 가지는 정신적 영상, 상징, 또는 관념의 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복랑외 5인, 1996).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사와 간호의 모든 면을 보는 방법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표현(Kalisch & Kalisch, 1982)이고 간호직에 대한 개념, 간호사들의 간호직에 대한 자아상으로 간호사가 무엇으로 보여지는 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와 자아 이미지를 기초로 하여 나타난다(이숙자, 1986). 이처럼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자신, 다른 보건 전문가 그리고 대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간호사 자신이 간호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뿐만 아니라 병원이라는 직장단위에서 간호사와 함께 상호 작용하는 의사와 병원직원 그리고 환자보호자가 경험을 통하여 간호와 간호사에 대해 품고 있는 신념, 느낌을 포함하는 것이다(송인자, 1993).

Kalisch & Kalisch(1982)에 의하면 간호의 이미지란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이라고 본다. 대중적 이미지는 사회와의 연결이 되는 것이며 대인관계와 대중매체에서 상징을 사용하여 상호간의 이미지를 교환함으로써 생성이 된다. 이러한 대중적 이미지는 그룹간의 격차를 야기하고 또한 강화시키며 만일 간호사들이 계속 부정적 이미지로 비추어 질 경우에는 그들의 삶과 포부에 영향을 미친다(Mendez and Louis, 1991).

Donly(1985)는 건강 전문가들 중 가장 거대한 조직인 간호사들은 건강 정책과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가치가 없고, 위치가 낮으며, 경제적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소속되어 활동하는 전문위원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전춘영(1983)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깨끗하고 일에 능숙하나 의사의 보조자이며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돈순(199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힘든 직업이고 헌신적이며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인식속에 전통적인

간호사 이미지가 아직도 많은 부분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간호사 이직율을 높이고 직무만족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집단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여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간호사와 상호협조하여 일을 처리하는 타 관련 부서 직원들은 간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여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전문성, 진료분야의 기여등에 대해선 오히려 의사에 비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송인자, 1993).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각하는 이미지에 의하여 행동하며 전문 직업인의 효율성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각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간호는 전문직이며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것이며 현대의 기술력이 간호의 더 큰 힘을 부여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의 질은 현대와 미래의 의료분야의 양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므로 간호사 개개인은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바람직한 전문 간호사 이미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윤은자, 1996).

2.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간호사가 환자에게 심어준 인상은 일회적인 결과가 아니며 환자가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가졌던 인상이 모아져 그 나름의 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한 것으로 간호사로부터 받은 돌봄이 인상적이었을 때 환자는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전춘영, 1993). 또한 간호사 이미지 구축에는 대중매체와 같은 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대중매체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모성적이고 순결하며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그려왔으며(김모임, 이원희, 1997)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대중매체에서 간호를 종종 의사의 보조자나 성적 대상자, 실수를 잘하는 자, 지식이 없는 의료 제공자로 그리고 있다(Kelly, 1980). 대중매체에서 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정도의 기술적 업무와 사건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주변적 인물 묘사됨으로서 대중들이 간호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식하는데 장애를 주어(임미림, 1995) 일반 대중들은 간호사는 극도로 힘들어 보이고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하고 있어 간호사가 잘 교육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Mendez and Louis, 199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개인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학력과 전문직 수용정도, 보수만족 여부등의 전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연령, 결혼상태, 종교 및 직업등의 일반적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자, 1986). 이와같이 간호사 이미지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상호작용, 대중매체등의 외적요인과 개인적 특성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간호이미지 형성은 간호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이러한 간호에 대해 그들이 만족함과 동시에 전문직 간호인 또한 직업적 만족을 얻고 대중으로부터 간호의 진가를 인정받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간호 이미지의 형성에는 대중매체와 같은 외적요인과 간호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내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Porter & Porter, 1991). 따라서 전문직 간호사들은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그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바람직한 이상형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K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93명, 보조인력 70명. 행정직 68명과 입원하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 149명을 임의 표출하여 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김형자·김현옥(2001)이 만든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4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는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에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2개의 문항(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

다, 늘 바쁘게 일한다)에 대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전체 이미지 정도를 계산할 때 역환산하여 '매우 그렇다'에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배려하였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97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업무적 이미지 영역 Cronbach'α = .86, 전문적 이미지 영역 Cronbach'α = .96, 사회적 이미지 영역 Cronbach'α = .90 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5월 10일 ~ 30일 까지 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받은 후 병동 수간호사에게 의뢰하여 의사, 보조인력,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행정직의 경우 각과의 책임자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450부 였으며 그중 412 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1.6% 였으며 이중 응답이 분명치 않은 32부를 제외하고 총 380부를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도구의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3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적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ANOVA와 x^2-test로 분석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일 지역의 일부 종합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추출방법이 임의표출로서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의 이미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종교, 학력을 조사하였으며 병원직원의 경우 직종, 근무기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령에서 25세-35세 미만이 의사는 73명(78.5%), 보조인력은 33명(47.1%)으로 많았으며 행정직은 35세-45세 미만이 27명(39.7%), 환자 및 보호자는 45세 이상이 79명(53%)이었다. 성별에서는 의사집단에서는 남자가 80명(86%)인 반면 보조인력에서는 여자가 69명(98.6%)로 많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결혼 및 종교에서는 의사집단을 제외하고는 기혼인 경우,

<표 1>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의사(N=93) 실수(%)	보조인력(N=70) 실수(%)	행정직(N=68) 실수(%)	환자및보호자(N=149) 실수(%)
연령 (세)	25 미만	2(2.2)	3(4.3)	1(1.5)	12(8.1)
	25-35미만	73(78.5)	33(47.1)	25(36.8)	24(16.1)
	35-45미만	12(12.9)	31(44.3)	27(39.7)	34(22.8)
	45 이상	6(6.5)	3(4.3)	15(22.1)	79(53.0)
성별	남	80(86.0)	1(1.4)	49(72.1)	65(43.6)
	여	13(14.0)	69(98.6)	19(27.9)	84(56.4)
결혼	기 혼	42(45.2)	48(68.6)	52(76.5)	108(72.5)
	미 혼	51(54.8)	22(31.4)	16(23.5)	41(27.5)
종교	유	42(45.2)	36(51.4)	37(54.4)	90(60.4)
	무	51(54.8)	34(48,6)	31(45,6)	59(39.6)
학력	대 졸 이 상	93(100)	2(2.9)	44(64.7)	45(30.2)
	전 문 대		5(7.1)	9(13.2)	20(13.4)
	고 졸		61(87.1)	15(22.1)	61(40.9)
	중 졸 이 하		2(2.9)		23(15.5)
근무 기간 (년)	5 미만	75(81.5)	7(10.0)	20(29.4)	
	5 - 10	8(8.7)	21(30.0)	12(17.7)	
	10 - 15	3(3.3)	18(25.7)	10(14.7)	
	15 이상	6(6.5)	24(34.3)	26(38.2)	

종교가 있는 경우가 50%이상이었으며, 학력은 의사, 행정직의 대졸이상이 각각 93명(100%), 44명(64.7%)이었으며 보조인력, 환자 및 보호자에서 고졸이 각각 61명(87.1%), 61명(40.9%)이었다.

병원직원의 경우 직종은 의사 93명(40.3%), 보조인력 70명(30.3%), 행정직68명(29. 5%)이었으며 병원 근무기간은 보조인력, 행정직에서 15년 이상이 각각 24명(34.3%), 26명(38.2%)이었으며 의사는 5년 미만이 75명(81.5%)이었다.

2) 환자 및 보호자의 특성

환자 보호자인 경우 직업, 입원기간, 입원병동 등의 특성에서 직업은 가사, 학생을 포함한 무직이 42.3%(62명), 회사원이 30.9%(46명)순이었으며 입원기간은 4주 이상이 33.6%(50명), 1주 미만이 21.5%(32명) 이었다. 입원병동은 외과병동이 43%(64명), 내과병동이 37명(24.8%)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환자 및 보호자 집단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직업	무직 (가사학생포함)	63(42.3)
	회 사 원	46(30.9)
	자 영 업	28(18.8)
	기 타	12(8.1)
입원기간 (주)	1 미만	32(21.5)
	1-2 미만	30(20.1)
	2-3 미만	23(15.4)
	3-4 미만	14(9.4)
	4 이 상	50(33.6)
입원병동	내 과	37(24.8)
	외 과	64(43.0)
	한 방	30(20.1)
	기 타	18(12.1)

2. 대상자 집단별 간호사 이미지 정도 비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환자 및 보호자(4.01), 의사(3.62), 보조인력(3.54), 행정직(3.41)순으로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14, p=.000). 또한 하위영역별로 이미지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업무적 이미지(3.97)가 가장 높고, 전문적(3.78), 사회적(3.41)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각 집단에서 업무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업무적 이미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사후검정결과 간호사의 업무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 행정직, 보조인력보다 그리고 의사는 행정직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문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보다 그리고 의사와 보조인력은 행정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환자 및 보호자가 행정직, 보조인력, 의사보다 그리고 의사는 행정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의 업무적 이미지 영역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가치있고 보람된 일(4.36)”이라는 이미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보조인력은 “늘 바쁘게 일한다(4.04)”는 항목에서 의사와 행정직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는 항목에서 각각 4.17,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대상자 집단별 간호사 이미지 정도 비교

문 항		의사 (N=93) M(SD)	보조인력 (N=70) M(SD)	행정직 (N=68) M(SD)	환자 및 보호자 (N=149) M(SD)	전체 M(SD)	F	p	DMR
총이미지점수		3.62(.48)	3.54(.38)	3.41(.39)	4.01(.46)		36.14	.000	
사후검정		B	AB	A	C				
업무적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4.17(.60)	3.97(.66)	3.99(.61)	4.13(.69)	3.97 (.46)	8.17	.000	C
	늘 바쁘게 일한다	3.84(.68)	4.04(.67)	3.87(.52)	4.17(.61)		16.85	.000	
	가치있고 보람된 일	4.11(.62)	3.87(.64)	3.94(.69)	4.36(.68)		10.08	.000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	4.00(.82)	3.77(.57)	3.71(.60)	4.30(.64)		13.83	.000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	3.75(.76)	3.94(.54)	3.53(.59)	4.20(.61)		35.67	.000	
	지식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함	3.86(.67)	3.70(.69)	3.63(.69)	4.04(.58)		7.62	.000	
	국민건강향상에 중요한 역할함	4.08(.61)	3.74(.67)	3.75(.74)	4.13(.70)		6.52	.000	
	응급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함	3.77(.69)	3.63(.64)	3.57(.58)	4.09(.68)		14.94	.000	
	숙련된 지식과 기술/ 활발히 활동함	3.81(.71)	3.66(.68)	3.59(.74)	4.07(.67)		9.94	.000	
계(평점)		3.93(.53)	3.81(.40)	3.73(.39)	4.17(.45)		20.36	.000*	
사후검정(Scheffe)		B	AB	A	C				

<표 3> 대상자 집단별 간호사 이미지 정도 비교(계속)

	문 항	의사 (N=93) M(SD)	보조인력 (N=70) M(SD)	행정직 (N=68) M(SD)	환자 및 보호자 (N=149) M(SD)	전체 M(SD)	F	p	DMR
전문적	양심적으로 간호를 제공함	3.85(.64)	3.81(.57)	3.41(.55)	4.17(.55)		40.64	.000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함	3.59(.73)	3.87(.51)	3.51(.66)	4.15(.64)		30.27	.000	
	간호에 대한 사명감이 있음	3.73(.75)	3.70(.62)	3.47(.70)	4.09(.72)		15.74	.000	
	환자의 비밀을 지켜준다	3.83(.77)	3.99(.71)	3.62(.71)	3.97(.65)		7.50	.000	
	조직적이고 질서있게 일처리를 함	3.77(.80)	3.94(.61)	3.23(.70)	4.09(.64)		20.72	.000	
	동료간에 결속력이 강함	3.91(.83)	3.66(.74)	3.70(.89)	4.02(.64)		4.46	.001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3.65(.72)	3.74(.76)	3.34(.66)	4.05(.57)		17.34	.000	
	환자에게 안정감을 줌	3.70(.69)	3.70(.62)	3.46(.72)	4.14(.68)		18.25	.000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음	3.65(.78)	3.71(.66)	3.56(.66)	4.13(.60)		12.45	.000	
	협조적이며 대인관계가 좋음	3.56(.83)	3.71(.64)	3.31(.70)	4.13(.64)	3.78	27.96	.000	B
	항상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3.58(.83)	3.61(.67)	3.56(.72)	4.13(.70)	(.55)	13.43	.000	
	직장에(병원) 애착이 강한 편임	3.23(.97)	3.60(.79)	3.29(.73)	3.97(.77)		17.11	.000	
	알아듣게 설명과 대답을 잘 해줌	3.59(.78)	3.67(.58)	3.26(.75)	4.17(.67)		29.57	.000	
	편견없이 환자를 대해준다	3.58(.76)	3.80(.65)	3.37(.77)	4.18(.59)		23.00	.000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줌	3.72(.79)	3.83(.59)	3.26(.75)	4.09(.65)		23.74	.000	
	환자와 가족에게 호의적임	3.75(.69)	3.79(.66)	3.37(.71)	4.10(.63)		21.94	.000	
	건강 상담자임	3.59(.71)	3.30(.77)	3.31(.76)	3.86(.74)		19.29	.000	
	환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음	3.63(.70)	3.41(.79)	3.40(.69)	3.97(.70)		17.93	.000	
	희생과 봉사정신이 강함	3.51(.75)	3.46(.72)	3.21(.80)	4.07(.73)		20.80	.000	
	환자 우선주의로 일처리를 함	3.42(.81)	3.64(.70)	3.22(.71)	3.98(.63)		23.49	.000	
	계	3.64(.52)	3.70(.43)	3.40(.49)	4.07(.50)		34.52	.000*	
	사후검정(Scheffe)	B	B	A	C				
사회적	여성으로 전망있는 직업임	3.62(.92)	3.60(.81)	3.54(.82)	4.07(.75)		8.33	.000	
	자기개발과 배우려는 의욕이 강함	3.51(.79)	3.61(.69)	3.53(.63)	4.19(.73)		5.72	.000	
	단체를 통하여 활발히 활동함	3.33(.92)	2.76(.81)	3.31(.70)	3.65(.69)		31.93	.000	
	위문·봉사활동같은 단체활동함	3.12(.66)	2.73(.81)	3.19(.70)	3.62(.75)		32.98	.000	
	지적 수준이 높음	3.53(.65)	3.17(.68)	3.29(.67)	3.86(.59)		17.93	.000	
	건강 교육자임	3.61(.71)	3.09(.85)	3.34(.70)	3.95(.68)	3.41 (.60)	22.03	.000	A
	어머니 같은 역할함	3.25(.80)	3.20(.67)	3.06(.67)	3.82(.68)		19.44	.000	
	의사와 동료의식이 강함	3.07(.96)	3.10(.73)	2.88(.89)	3.77(.75)		20.85	.000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임	3.24(.71)	2.73(.80)	3.03(.67)	3.55(.74)		21.79	.000	
	가족/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임	3.01(.90)	2.64(.92)	2.85(.85)	3.54(.87)		20.16	.000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함	3.16(.76)	2.70(.89)	2.84(.66)	3.44(.91)		14.31	.000	
	계	3.31(.53)	3.03(.52)	3.17(.41)	3.77(.55)		42.35	.000*	
	사후검정(Scheffe)	A	AB	B	C				

* P<.05

전문적 이미지 영역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편견없이 환자를 대해준다(4.18)”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보조인력은 “환자의 비밀을 지켜준다(3.99)”는 항목에서 의사와 행정직은 “동료간에 결속력이 강하다”라는 항목에서 각각 3.91,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이미지 영역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보조인력은 “자기 개발과 배우려는 의욕이 강함”의 항목에서 각각 4.19, 3.61로 가장 높았고, 의사와 행정직은 “여성으로서 전망있는 직업이다”는 항목에서 각각 3.62,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대상별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

현재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병원에서 접촉을 통하여 간호사를 직접 봄으로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가 81.3%, 주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의 일상생활을 보고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는 15.5%,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 받은 경우는 1.6%,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표 4>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

	의사 N=93	보조인력 N=70	행정직 N=68	환자 및 보호자 N=149	계 N=380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병원에서 직접 봄으로	82(88.2)	50(71.4)	54(79.4)	123(82.6)	309(81.3)
간호사의 일상생활을 보고	10(10.8)	14(20.0)	11(16.2)	24(16.1)	59(15.5)
대중매체를 통하여	-	4(5.7)	1(1.5)	1(0.7)	6(1.6)
다른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1(1.1)	2(2.9)	2(2.9)	1(0.7)	6(1.6)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집단별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

대중매체의 실제 간호사 이미지 반영정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중매체에서 간호사는 실제보다 좋게 보여지고 있다가 78.4%, 실제보다 나쁘게 보여지고 있다가 8.2%, 실제와 일치한다가 13.2%인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에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실제와 일치되게 묘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는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에도 대중매체에서 본 간호사의 이미지가 실제보다 좋게 묘사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나쁘게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4%, 실제와 일치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1.5%이었다. 환자 및 보호자인 경우 대중매체에서 본 간호사의 이미지와 실제 입원해서 본 간호사의 이미지간의 일치 정도를 응답한 양상은 의사, 행정직, 보조인력과 유사하였으나 응답의 비율에서 실제와 일치한다고 인식한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좋게 묘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5.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비교

1) 입원경험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

입원경험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입원경험 후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경우는 111명(74.5%),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한 경우 3명(2%), 변함이 없는 경우는 35명(23.5%)로 나타났다.

<표 6> 입원경험을 통한 간호사 이미지

	실수(%)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	111(74.5)
좋지않은방향으로변했다	3(2.0)
변함이 없다	35(23.5)

2)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비교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비교는 <표 7>와 같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총이미지 점수는 1-2주미만(4.14), 2-4주미만(4.07), 4주이상(4.02), 1주미만(3.80)순으로 나타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0, P=.019).

하위영역별로 보면 업무적 이미지 영역(F=3.62, P=.015)와 전문적 이미지 영역(F=3.89, P=.010)에서는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이미지영역(F=1.12, P=.34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정결과 업무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1-2주미만 집단과 2-4주미만 집단이 1주미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적 이미지영역에서는 1-2주미만 집단이 1주미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과 간호사이미지 변화와의 관련성

<표 5>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 이미지

	의사 N=93	보조인력 N=70	행정직 N=68	환자보호자 N=149	계 N=380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실제와 일치한다	12(12.9)	3(4.3)	3(4.4)	32(21.5)	50(13.2)
좋게 묘사되고 있다	70(75.3)	60(85.7)	59(86.8)	109(73.2)	298(78.4)
나쁘게 묘사되고 있다	11(11.8)	7(10.0)	5(7.4)	8(5.4)	31(8.2)
잘 모르겠다	-		1(1.5)	-	1(0.3)

<표 7>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비교

구분(n)		M(SD)	F	P	Scheffe
이미지 (합계)	1주미만(32)	3.80(.50)	3.40	.019	A
	1-2주미만(30)	4.14(.48)			B
	2-4주미만(37)	4.07(.36)			AB
	4주이상(50)	4.02(.45)			AB
업무적	1주미만(32)	3.95(.50)	3.62	.018	A
	1-2주미만(30)	4.28(.43)			B
	2-4주미만(37)	4.25(.42)			B
	4주이상(50)	4.17(.49)			AB
전문적	1주미만(32)	3.83(.51)	3.89	.010	A
	1-2주미만(30)	4.22(.52)			B
	2-4주미만(37)	4.14(.40)			AB
	4주이상(50)	4.07(.49)			AB
사회적	1주미만(32)	3.64(.69)	1.12	.345	
	1-2주미만(30)	3.90(.58)			
	2-4주미만(37)	3.83(.38)			
	4주이상(50)	3.75(.69)			

<표 8>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과 간호사 이미지 변화

구 분		이미지변화 N(%) 좋게변화	나쁘게변화	변화없음	χ^2	P
입원기간 (주)	1 미만	25(16.8)	0	7(4.7)	5.04	.489
	1-2 미만	21(14.1)	1(0.67)	8(5.4)		
	2-4 미만	24(16.1)	1(0.67)	12(8.1)		
	4 이상	41(27.5)	1(0.67)	8(5.4)		
합 계		111(74.5)	3(2)	35(23.5)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과 간호사이미지 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이 4주이상 입원한 경우 27.5%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변했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변화가 없다는 2-4주 미만 입원한 집단에서 8.1%만이 응답하여 입원기간과 간호사의 이미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5.04, P=.489).

6.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비교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 9>과 같이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병동에 따라서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차이가 없었다.

<표 9>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정도 비교

		M(SD)	F	P
업무적	내과	4.19(.51)	.64	.591
	외과	4.21(.49)		
	한방	4.12(.33)		
	기타	4.06(.36)		
전문적	내과	4.09(.60)	.70	.556
	외과	4.11(.50)		
	한방	4.07(.37)		
	기타	3.91(.48)		
사회적	내과	3.79(.68)	.98	.406
	외과	3.74(.54)		
	한방	3.89(.39)		
	기타	3.62(.52)		
평균		3.98(.48)	.77	.518

V. 논 의

1. 대상자 집단별 간호사 이미지 정도 비교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환자 및 보호자 4.01점(±0.46), 의사 3.62점(±0.48), 보조인력 3.54점(±0.38), 행정직 3.41점(±0.39)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14, p=.000). 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보조인력·행정직보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간호 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를 비교 분석한 연구(송인자, 1993)결과와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김형자외, 2001)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사 이미지는 병원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매일의 업무에서 만나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의사와 타부서 관련 직원들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이들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 집단에서 의사나 병원직원보다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환자로서 입원해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실제 간호사를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이득을 얻게 되면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갖게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직 집단에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점수가 낮은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집단의식의 표현으로 인한 한 직장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중 의사집단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4.17)'라는 문항을, 보조인력 집단은 '늘 바쁘게 일한다(4.04)'는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두 집단 모두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다'라는 문항에서 각각 3.01, 2.64로 이미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 중 행정직 집단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3.99)'라는 문항을, 환자 및 보호자 집단은 '가치있고 보람된 일을 한다(4.36)'는 문항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두 집단 모두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한다'라는 문항에서 각각 2.84, 3.44로 이미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재숙(1998)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는 것이 가장 강한 이미지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김형자등(2001)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늘 바쁘게 일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주요 이직요인으로 과다한 작업량, 격무등을 보고한 김미영(1995)의 연구를 볼 때 이는 최근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및 간호사의 업무량이 증가됨으로 간호사의 사기를 저하시켜 환자간호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간호 요구도에 부응하는 질적인 간호제공을 도모하고 보다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김복랑등(1996)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수행한 간호사 이미지 조사연구에서 대학생들은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Kiger(1993)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간호사는 가치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양일심(1998)의 환자, 보호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을 한다가 높은 점수로 나타나 간호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보람된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사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김형자외(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이나 친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인력충원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emsley-Brown등(1999)의 연구에서 간호사 직업이 도전적이지 못하고 지적이지 않은 신체적 요구를 주로 필요로 하는 낮은 수준의 직업이라고 느껴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갖지 못한다는 결과와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갤럽조사에서 간호직이 작업 환경, 수입, 미래의 발전, 임금, 스트레스, 고용 경향의 사회적 측면에서 250개 전문직 중 137번째의 바람직한 직업 순위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강혜경, 2003).

독자적인 간호 수행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송인자(1993), 양일심(1998), 김형자외(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전시자(1983)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며 환자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44.7%에 불과했고 강경자(1971)의 간호활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독자적인 업무는 겨우 20%가 수행되고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간호가 전문직으로 우리사회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전산초, 1980), 주로 간호사는 의사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기능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인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고 간호사 스스로는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간호의 다양성과 간호영역 및 역할의 변화, 간호교육수준의 향상과 간호의 전문직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하며 환자의 간호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영역별 분류에서는 업무적 이미지가 가장 높고(3.97), 전문적 이미지(3.78), 사회적 이미지(3.4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이미지 영역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양일심(1998)의 연구와 강혜영외(2003) 연구와의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자의 간호사 이미지 영역별 분류에서 이미지를 평가하는 동일한 문항이 각각 다른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볼 때 대다수 대상자들의 간호사 이미지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가치있고 보람된 일을 하며 늘 바쁘게 일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간호수행, 타인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간호사와 상호 협조하여 일을 처리해야 하는 관련 부서직원들이 간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간호업무 수행 및 동료 의식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동료로부터 부정적 이미지 평가를 받는 원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대상별 집단의 간호사 이미지 형성요인

병원에서 접촉을 통하여 간호사를 직접 봄으로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된 경우가 81.3%, 주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의 일상생활을 보고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는 15.5%,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 받은 경우는 1.6%,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해 조사한 Thomas & Patricia(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90%가 간호사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대중매체에 의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입원이나 보호자 역할, 병문안 등 간호사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대중매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병원에서 입원경험이나 보호자 역할, 병문안을 통해 직접 간호사와 접촉하거나 주위에 알고 지내는 간호사의 생활을 보고 현재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경우가 전체적으로 92.3% 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하는 유·무형의 메시지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사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중 약 75-85% 정도가 대중매체에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게 묘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쁘게 보여진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에도 대중매체에서 본 간호사의 이미지가 실제보다 좋게 묘사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나쁘게 묘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4%, 실제와 일치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1.5%로 나타났으나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일치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좋게 묘사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TV, 신문, 영화, 소설등 대중매체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어 왔으나 (정면숙외, 1993) 최근에 우리나라의 TV 드라마를 분석한 결과(간협신보, 2000)에 의하면 간호사를 친절하고 유머와 재치가 있는 역할로 묘사되고 있는등 긍정적인 역할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묘사하는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동료들은 실제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대중매체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실제와 일치되게 묘사하는 경우는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집단간에 인식에 차이를 가져온 근원을 규명하고 간호사 스스로가 대중매체의 작가가 간호사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간호사 이미지 비교

입원경험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한 경우가 74.5%, 변함이 없다는 16.8%,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했다는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간호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근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입원 경험을 통해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대상자가 많이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대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환자 및 간호사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총이미지 점수는 1-2주미만(4.14), 2-4주미만(4.07), 4주이상(4.02), 1주미만(3.80)순으로 나타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0$, $P=.019$).

하위영역별로 보면 업무적 이미지 영역($F=3.62$, $P=.015$)와 전문적 이미지 영역($F=3.89$, $P=.010$)에서는 입원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이미지영역($F=1.12$, $P=.34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정결과 업무적 이미지 영역에서는 1-2주미만 집단과 2-4주미만 집단이 1주미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문적이미지영역에서는 1-2주미만 집단이 1주미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입원 1주 미만인 대상자에서 간호사의 이미지 영역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원기간이 짧아 간호사의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된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과 간호사이미지 변화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과 간호사의 이미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5.04$, $P=.489$) 입원 기간 1주

미만집단에서 16.8%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변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4주이상 입원한 집단은 27.5%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변했다고 응답해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간호사를 보거나 직접 접촉하여 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가 98.7%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간호사들이 지나치게 진료 보조 업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간호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 간호사의 인격등의 정신적 자질,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간호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전략 즉, 간호사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대중매체 활용, 전문직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 전문직 발전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간호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시내 K의료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와 K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보조인력, 행정직 380명이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5월 10일부터 2003년 5월 30일 까지 였다.

간호사 이미지 측정도구는 김형자·김현옥(2001)이 만든 도구를 본 연구자가 구성 타당도 및 검정을 통하여 40개 문항을 3개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α 가 .97 이었고 영역별 신뢰도는 업무적 이미지 Cronbach′α= .86, 전문적 이미지 Cronbach′α= .96, 사회적 이미지 Cronbach′α= .90 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실수와 백분율,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ANOVA, x^2 - test,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환자 및 보호자(4.01), 의사(3.62), 보조인력(3.54), 행정직(3.41)순으로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14, p=.000). 하위 영역별로 보면 업무적, 전문적, 사회적 이미지 영역에서도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0.36 ~ 42.35, p=.000).
2. 간호사 이미지 형성의 주요 요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를 직접 봄으로 81.3%, 주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간호사의 일상생활을 보고 15.5%,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 받은 경우 1.6%,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간호사의 이미지가 형성된 경우는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중매체에서 간호사는 실제보다 좋게 보여지고 있다는 경우가 78.4%, 실제보다 나쁘게 보여진다 8.2%, 대중매체에서 간호사의 이미지를 실제와 일치되게 묘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경우는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입원경험 후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경우(74.5%),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한 경우(2%), 변함이 없는 경우(23.5%)순으로 나타났고, 입원기간과 간호사의 이미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χ2=5.04, P=.489) 입원기간 1주 미만집단에 비해 4주이상 입원한 집단에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에서 27.5%로 증가하였다.
5.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간호사의 총이미지 점수는 1-2주미만(4.14), 2-4주미만(4.07), 4주이상(4.02), 1주미만(3.80)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40, p=.019).
6. 환자 및 보호자의 입원 병동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77, p=.518).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자 및 보호자가 의사, 보조인력 그리고 행정직보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긍적적이었다. 이는 입원경험을 통해서 간호사와 직접 접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에서 간호사 개인의 노력과 대중매체 활용, 전문직 활동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간호사의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원인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2.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경자 (1971). 간호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간호학회지*, 12(1), 35-47.

강혜영, 고미혜, 양진주, 김선미 (2003).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한간호학회지*, 33(6), 792-801.

김모임, 이원희 (1997). *간호윤리와 실무*. 서울 : 현문사.

김미영 (1995). *간호사 이직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복랑, 김선희, 김옥숙, 남영희, 이길자 및 정복례 (1996).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대한간호, 35*(4), 75-90.

김형자, 김현옥 (2001).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7*(1), 97-109.

송인자 (1993) 간호이미지에 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2*(2), 51-61.

송경애, 노춘희 (1996).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94-105.

양일심 (1998).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4*(2), 289-305.

윤은자 (1996). 간호사의 전문간호사 이미지 유형에 관한 연구. Q-방법론적 접근. *간호행정학회지, 2*(2), 13-23.

이돈순 (1995). *일반인이 인지한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숙자 (1986). *임상간호원의 간호원상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희준 (1990). 시장개방 시대의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 *서강하버드 비즈니스*, 77-84.

임미림 (1995).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7,* 64-83.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전산초 (1980). 80년대 간호를 내다본다. *대한간호, 19*(2), 7-9.

전시자 (1983). 간호원상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 *적십자 간호대학 논문집*, 5, 107-125.

전춘영 (1993). 간호사 이미지 향상 전략방안 - 간호부서의 활동계획과 실시 및 평가. *대한간호, 32*(2), 43-49.

정면숙, 강영실 (1993).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1), 16-28.

정재숙 (1998).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onley, S. R. (1985). Strategies for changing nursing's image, J. C. McCloskey & H.K Grace(Eds.), *Current Issues In Nursing,* 824-834.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Inc.

Hemsley-Brown, J., & Foskett, N. H. (1999). Career & desirability: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nursing as a career. *J Adv Nurs.* 29(6), 1342-1350.

Kalisch, P. A., & Kalisch, B. J. (1982) The Images of the Nurses in Motion Pictures. *AJN.* April, 605-612.

Kelly, L. (1980). Nursing Image : A question of identity. *Nurses Outlook,* 28, 202.

Kiger, A. M. (1993). Accord and didaccord in students' image of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2(7), 309-317.

Kotler, P., & Clarke, R. N. (1987). *Mark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Mendez, D., & Louis, M. (1991). College students image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7), 311-319.

Porter, R. T., & Porter, M. J. (1991). Career Development ; Ou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7*(4), July-Aug., 208-212.

- Abstract -

Key concept : Image

A Study on Nurse' Image in a Medical Center

Han, Sang Sook · Sohn, In Soon***

*Lee, Myung Hai*** · Choi, Kyoung Soon*****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into the image of nurses, and attempted to help to advance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Director of Nursing, Kyung Hee Medical Center

*** Head Nurse, ,Kyung Hee Medical Center

**** Nurse, Kyung Hee Medical Center

the profession of nurs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group of 380 persons from a K Medical Centre in Seoul, including the hospital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as well as the doctors, assistants and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The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the 10th to the 30th of May, 2003.

We have developed a research tool of 40 question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using a tool developed by Kim, H.J and KIm, H.O.(2001) verifying its construct validity. The reliability of the tool was Cronbache′α .97, and by categories, Cronbach′s α=.86 for service image, Cronbach‘s α =.96 for professional image and Cronbache‘s α=.90 for social image.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s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SPSS WIN 11.0 for real number, percentage, factor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OVA and x^2 - test,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age of nurses by job series of the subjects; from patients and guardians for 4.01 to doctors 3.62, assistants 3.54 and staff members 3.41 (F=36.14, p=.000). As well,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rvice, professional and social imag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ubjects (F=20.36 ~42.35, p=.000).
2)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on formation the nurse′s imaging came by direct experiences with nurses at hospitals for 81.3%, by looking at the every life of the nurses that the subjects personally know for 15.5%, by mass media for 1.6% and by the accounts from the others for 1.6%.
3) 78.4% of the subjects considered that the image of nurses on mass media is described better than for real, 8.2% believed that the image is described worse than for real, and only 13.2% of the subjects perceived that the image of nurses on mass media corresponds the image of nurses in actual life.
4) 74.5% of the subjects said that they got a better image of nurses after their hospitalization while 2% got a worse one and 23.5% said to have had no changes, a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had no relevance to the image of nurses (χ 2=5.04, P=.489). However, while 16.8% of the subjects who spent less than one week in hospital said that they got a better image of nurses, 27.5% of those who spent longer than four weeks got a better image of nurses.
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image points of nurses by the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according to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4.14 for 1 to 2 weeks, 4.07 for 2 to 4 weeks, 4.02 for 4 weeks and longer and 3.80 for less than a week (F=3.40, P=.019).

Upon the results stated above, I should like to propose as below:

1) An investigative enquiry is needed to improve the image of nurses as though being a nurse is very hard and difficult.
2) A continuous monitoring in mass media is needed to create a positive image of nurses.